

여수상의도 1000만 관광객 유치 힘 보탠다

전국 1500개 단체 등에 협조 공문 최근 연휴기간 15만명 여수 다녀가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수시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여수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488곳의 상의 기관, 학회, 조합 등에 여수 방문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여수상의는 5일 “지난 4일 세계 3대 행사인 2012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드문 지방 도시인 여수를 찾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여수상의는 이 공문에서 “여수는 세계 최고의 해양관광지 휴양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거문도 등 365개의 섬들이 보석처럼 바다에 널려있는 아름다운 곳”이라며 “가까운 순천에

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음식이 방문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다”고 자신했다.

또 다음달부터 빅오(Big-O)쇼,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등 박람회 당시 인기를 끌었던 박람회 시설들이 재가동되는 만큼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의는 특히 전국 단위의 학술 행사와 세미나, 워크숍, 단체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특급호텔과 다양한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부각시켰다.

지난달에는 중국 현지 여행사 19

곳에 박람회 개최도시로 위상이 높아진 여수를 한국 여행상품에 넣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 안웨이일용품유한공사가 내년 봄 모두 8차례로 나눠 약 2만5000명이 여수를 방문한다고 결정했다.

시의 상의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지난 1일부터 3일간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14만9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설 연휴 기간 3만5000여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3일 연휴기간 호텔 15개와 콘도 2개소 등 여수지역 전체 객실 1381실 가운데 평균 1306실이 차면서 투숙률은 95%를 보였다. 특히 지난 1일 오후에는 아쿠아플라넷에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 일대가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다.

한편 김충석 여수시장은 오동도 등 주요 관광지 인근에 학교시설과 노상 주차장 등을 이용한 임시주차장 확보 등 주차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숙박·음식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고흥 '사랑의 이동 목욕봉사' 활동

고흥군은 5일 고흥읍을 시작으로 관내 16개 읍면 거동불편 군민 35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동목욕봉사를 시작했다.(사진)

이동목욕 봉사활동은 지난 200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받은 2.5t 이동목욕차량을 이용,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해 주위의 도움 없이 목욕을 할 수 없는 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매주 2차례씩 각 마을을 순회 방문하면서 거동불편 군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사랑의 목욕봉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40개 자원봉사 등록 단체 672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동목욕 봉사는 물론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사랑나눔봉사, 각종 행사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순천, 스타기업 3곳 선정

(주)썬테크·(주)릴테크·신성메이저와 업무협약

순천시는 (주)썬테크, (주)릴테크, 신성메이저 등 3곳의 지역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8일 오전 '업무협약 체결 및 지정서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수여식은 조충훈 순천시장은, (재)전남테크노파크 홍종희 원장 및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지역기업들은 순천시와 기업육성 전담기관인 (재)전남테크노파크의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의해 3년간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마케팅, 체계적인 기업분석을 통한 현장 밀착형·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재)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스타기업 선정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조사, 발표평가 등 적격심사를 거쳐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3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5일 오전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열린 제33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참석자들이 백운산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와 광양시민의 안녕 및 지역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올해 약수제는 길놀이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동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합수제, 제례악공연, 고로쇠약수의 풍성한 채취를 기원하는 제례 등으로 꾸며졌다. (광양시 제공)

해양오염사고 방지 간담회

여수해양경찰청은 6일 오후 여수해경 3층 강당에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등 55개 기관 및 업체가 참석하는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역량 강화

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형해양사고로 발전가능한 선박사고와 빈발하면서 해양오염 대비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북

정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호평

25명 취업 1명 창업... 저소득 자활 큰 도움

정읍시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저소득 주민의 취업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저소득 주민은 72명으로, 이 가운데 25명이 일반사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판매직 등에 취업했고, 1명이 창업했다.

12명이 직장을 구하고 있으며, 14명이 취업상담중이다. 나머지 20명은 조리사, 제과제빵, 피부미용, 간호조무사, 전산회계 등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전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향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1단계로 취업상담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능력을 높이며, 3단계로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서비스 대상으로 시 추천

을 통해 우선 참여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남원 환경미화원 인력탄력제

전국 최초...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도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환경미화원 탄력 인력 관리제 도입을 결정했다.

시는 5일 "환경미화원 72명이 불법쓰레기 투기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사고 정보 제공과 증거 확보 등 전전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청소 차량 8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청소구역 실명제, 오토바이 청소 기동대, 자전거 청소 기동대 등을 도입하고 환경미화원에게 도보 청소를 권장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지도 단속 홍보 요원도

겸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매일 오후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및 녹색생활 실천 등 쓰레기 분리수거, 규격분류 사용하기, 음식물 종량제, 유원지 쓰레기 퇴거가 자기운동 등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리한주 시장은 "환경보전은 우리시대의 의무이자 책무이다"며 "민저 혁신적인 환경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남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장류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 됐다

축제콘텐츠 대상 영예

순창장류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위상을 높였다.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제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제7회 순창장류축제가 축제경제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콘텐츠 대상은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축제를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응모 공고와 1차 선정 후보, 선정위원의 공적서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 1일 최종심사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선정위원회는 학계 대표 교수 20명과 산업계 전문가 대표 등 총 50명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반인들로 구성됐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이 중에서 20명을 무작위 선정해 서류심사와 인터뷰

를 통해 6개 부문별 20개 축제를 뽑았다.

지난해 열린 제7회 순창장류축제는 전문가의 응결결과 관광객 18만명, 매출액 138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의 특산물인 장류를 축제 콘텐츠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순창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축제로 인정받은 것이다.

시상식장에서 황숙주 순창군수는 "최근 K팝 등 한류 열풍 속에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의 지역축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열리는 순창장류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거듭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기획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화훼 방제 작업하는 로봇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5일 오후 전주 시내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의 방제작업을 대신해줄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이 로봇은 유리온실 안에 깔아놓은 레일을 타고 움직이며 정해진 구역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농약을 살포한다. 자동으로 움직이며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5일 오후 전주 시내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의 방제작업을 대신해줄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이 로봇은 유리온실 안에 깔아놓은 레일을 타고 움직이며 정해진 구역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농약을 살포한다. 자동으로 움직이며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 /연남뉴스

단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연휴 3일간 5600여명 찾아

군산의 특화된 박물관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의 내실 있는 박물관으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군산시는 5일 "3.1절을 포함한 지난주 연휴기간(3일간)에 5600여명 방문객들이 박물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관람객이 급감할 것이라는 일

부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올 들어 주말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하면서 시의 재정 수입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관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해 총 32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벌였으며, 개관 이후 16개월 동안 3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받아

통합 마케팅 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남원시는 5일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근 정식 인가를 받아 통합유통 주체로서의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 5곳이 각각 출자금 2억원씩 총 10억원을 출자해 지난해 12월3일 설립했다. 이 법인은 전라품목으로 딸기, 복숭아, 감자, 포도, 파프리카, 멜론 등 6개 품목, 육성품목으로 상추, 사과, 배, 복분자, 오이, 방울토마토, 수박 7개 품목을 정하고 생산된 원예농산물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부안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대한노인회부안군지부는 5일 노인회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노인회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사업은 거리환경개선사업(10명)과 노인학대예방사업(10명), 스포츠교통지원사업(20명), 게이트볼강사과견사업(10명) 등 4개 분야다.

은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에게 꾸준히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서 기쁘다"고 말했다. 또 13개 읍면에서는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과(428명)와 생활시설이용자돌봄사업(10명), 거동불편노인돌봄지원사업(40명)을 운영하게 된다. /부안=김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종합평가

정읍시는 5일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30개 단체 31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7개 사업이 '우수', 13개사업 '보통', 9개 사업 '미흡'으로 나타났다. 2개 사업은 부진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에는 사업비 감액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